

<인사말>

제방에서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원로 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월선원의 숭고한 정신을 지켜내고자 이 자리에 함께해준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 이하 대중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불교중흥의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해방 이후 극심한 사회혼란 속에 일제의 탄압으로 불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성철스님과 청담스님 등 조사스님들은 47년 봉암사 결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교개혁의 역사를 걸어간 바 있습니다.

7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는 점차 안정되었지만 오늘날 한국불교 앞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와 소임은 여전히 막중합니다.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책임을 비롯하여 자리이타에 기반한 사회적 역할, 공존과 상생을 위한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역할 등 수많은 과제와 도전을 해결해야 합니다.

봉암사 결사 당시 내걸었던 공주규약(共住規約) 보다 훨씬 엄격하고 혹독한 청규를 다짐하고 수행 정진을 하고 있는 이곳 상월선원은 그 처절함과 치열함으로부터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위한 불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 불자의 마음을 모아 난마처럼 얽힌 한국불교의 현실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理)와 사(事), 승과 속, 산종과 도심을 구분 짓지 않고 분별없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상월선원의 새로운 시도는 불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종단의 위상을 높여 한 단계 도약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숭고한 상월선원의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한국불교는 거듭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곳 상월선원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과 가르침이라

고 생각합니다.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하여 아홉분의 스님들이 무탈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준 모든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3년 1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